

이재명-이낙연 “정권 재창출” 포용

원팀 회동서 협력 뜻 모아 이낙연, 상임고문직 수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거세게 충돌했던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원팀 회동’을 갖고 정권 재창출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요청을 수락하고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지 역구였던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서 지난 10일 경선 종료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당원과 지지자께선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말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도록 당 지도자가 앞서서 노력했으면 한다”며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인생으로나 당 활동 이력,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대표님”이라고 화답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 전 대표로부터 채우고, 수시로 조언을 얻고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국가와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며 “이 전 대표가 품이 넓게 모든 길을 수용해 주시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일을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이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직 제안을 이 전 대표가 수락했다고 회동에 배석한 오영훈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는 한편 이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선대위 참여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화기애애했던 내부 분위기와 달리 회동이 이뤄진 찻집 밖에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결선투표를 재차 요구하는 등 치열했던 경선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후보에게 욕설까지 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 찻집에서 회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 기득권자 느낌 돼버려 洪, 바람 극대화 전략 필요”

이준석 대표 당내 경선 관전평 “유승민, 지지율 돌파력 아쉬워 원희룡, 수재 이외 이미지 필요”

제1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들 가운데 경합을 지켜봐 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관전평을 내놨다.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캠프) 덩어리를 키우는 건 좋는데 조직을 너무 키워서 신참 도전자 느낌보단 기득권자 같은 느낌이 돼버렸다”며 “이것이 확장성을 저해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역대 대선에서 승부를 갈랐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보다 눈앞의 경선 승리에 필요한 ‘대세론’ 굳히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선 “바람을, 굉장히 트렌디한 바람을 타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바람을 극대화하

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후수를 폈다. 홍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는 등 기존 ‘바람에 의존한 선거 전략’에다 조직력을 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선 지지율을 끌어 올릴 돌파력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유 후보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 동력이 한 번 상실돼 끝까지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 아쉽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학력고사·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원희룡 후보에 대해선 ‘수재’ 이외 다른 이미지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원 후보가 최근 ‘대장동 의혹 1타 감사’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뚝뚝함’에 더해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홍준표·유승민 결단을” 야권 일부서 단일화 요구

“현실적으로 후보 되기 어렵다면 정권 교체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두 후보는 완주 의사 분명히 밝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유승민·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선 판세를 뒤 흔들 수 있는 단일화 카드가 막판 승부를 좌우할 수단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대원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 유 후보는 자신들이 밝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 캠프에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구태 인사들이 줄을 이어, 정권 탈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당내 정치개혁”이라며 “두 후보는 스스로 반드시 후보가 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

영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불쏘시개로 던지는 희생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홍 후보의 자만과 ‘3등을 하더라도 홀로 완주한다’는 유 후보의 고집으로 경선과 본선을 모두 넘겨준다면 정권 교체 실패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 후보에 대해 “정책에 아주 강하다. 무소불을 물어도 답이 술술 나온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일화 논의 여부에 대해선 “묻는 것도 실례이고 답하는 것도 결례”라고 잘라 말했다.

유 후보도 지난 22일 홍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한 단일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단일화도 없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안철수 31일쯤 출마 선언할 듯...김동연 ‘새로운 물결’ 창당 대회

제3지대 대선 링 준비 마쳐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워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링’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안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이전에 출사표를 던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지역 방문을 본격화하기로 한 만큼 세 물이를 이어가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TV 합동토론회를 앞둔 31일쯤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안 대표는 25일 전남 영광군의 원전을 방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총리는 24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

인대회에서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이 바로 그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특히 당명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며 “끝까지 경합했던 제안이 바로 ‘오징어당’이었다”며 “승자독식 구조와 그 속에서 죽어 나가는 등 장인들 등 ‘오징어 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여야는 경쟁하듯 김 전 부총리 끌어안기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로운 물결은 정치를 자극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과 새로운 물결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고 구애했다.

송신용 기자 syytk06@imaeil.com

와룡숲속놀이터

배실웨딩공원

대구의 서부권 시대를 열어나갈 달서구

- 대구최초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 전국최초 결혼친화도시
- E 환경 · S 사회적가치 · G 협업 평가 전국 2위(226개 시·군·구 중)
- 비수도권 유일 스마트도시 대상 수상

자원봉사자 그린카펫 참여

환경 감시 중인 드론

달서구! 대구의 중심, 새 시대의 희망